

막 올린 16대 총장 선출 … 후보 7인의 포부는?

- 변화 추구하는 움직임에 부응
- 재정, 교육, 연구, 자율성 문제 해결
- 존경받는 경희대학교 만들기
- 교육의 플래그쉽 역할 제공

김도연 예비 후보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교수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
- 등록금 인상 합리성 확보
- 미래융합인재대학 설립
- 구성원 간 화합 도모

오환섭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 미래지향적 대학 실현
- 전 학생 대상 AI 교육 제공
- 경희백년전략위원회 설치
-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대학

장성구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27년 경험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
- 인사관리제도 개선
- 연구비, 인센티브 제도 개선
- 구성원 복지 개선 및 소통 채널 구축

정완용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성원이 만족하는 대학
- 양 캠 R&D밸리 건설
- 서울캠 병설 학교 외부 이전
- R&D밸리를 통한 재정 확보

정진영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 위기 맞은 대학 개선
- 지구적 과제 수행
- 인적, 제도적, 연구설비 적시 제공
- 다양한 수입원 창출과 지출 효율화

한균태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교수)



-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러운 대학
-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
- 기부금 300억 원으로 증액
- 취업률 75% 달성

황주호 예비 후보자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지난달 24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은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 후보자 7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예비 후보자는 외부 인사 1명, 내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일부터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대학주보 1653호는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예비후보자 특집호로 발행되며 이들 7명의 정책 인터뷰를 담았다. 개교 70년 아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민주적 총장선출에서 과연 누가 우리학교를 이끌어 갈 총장의 자리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 4, 5, 6, 7, 8, 9, 10면) ※ 위 후보자 순서, 가나다순.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총장 후보 3인, 직선제로 추천, 직원 - 학생 투표반영비, 50 : 50

10. 30 구성원 대표 최종 합의로 시행세칙 마련

구성원 대표 “김도연 예비 후보 절차 위반”

대학 “행정상 착오, 김도연 후보 아무 문제 없어”

김지원 기자 kjk990327@khu.ac.kr

지난달 30일 대학과 구성원 단체 대표자가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대학-구성원 대표 합의문’(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해 투표 방식과 직원·학생 투표반영 비율, 시행세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구성원 대표들은 절차상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함께 내놨다.

대학과 일부 구성원은 10월 2일 발표된 ‘제16대 총장후보추천 지침’(지침) 수정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일부 구성원은 발표된 지침내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과 시행세칙 마련 선행을 요구했고 대학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대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된 지침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를 통해 지침 내에서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한 결과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구성원이 “시행세칙

를 내면서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2차 총추위 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교수의회는 대학에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구성원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한 관리 권한이 총추위에 있음을 고려해 구성원 단체 대표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오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10월 30일 구성원 대표자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구성원 단체 대표들은 투표 방식과 직원·학생 투표반영 비율, 시행세칙 준수 등에 합의했다. 문제가 되던 시행세칙이 마련되면서 줄곧 불안했던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었다.

이날 채택한 합의문은 교수·직원·학생을 포함하는 전 구성원의 직선제를 전제한다. 또 2안 의결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 직원·학생 간 투표반영 비율은 50:50로, 직원 내부 투표반영률은 제1노조가 60%, 제2노조와 의료원 노조가 각각 20%씩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 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총추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실제로 10월 10일 예정됐던 총추위 1차 회의는 직원 및 교수 위원의 불참으로 성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0월 16일 총추위 회의에 직원 위원과 일부 교수 위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성원됐다. 비로소 정식으로 1차 총추위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이후 총추위는 이명웅 범인 위원을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연구 실적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총장후보토론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일부 해결했다. 이어 10월 23일 개최된 2차 총추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총장후보토론회 진행 방식과 김도연 총장 예비 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선거운동과 구성원 투표방식에 대한 세칙을 마련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총추위 회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수 위원이 불참하고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

를 내면서 구성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2차 총추위 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교수의회는 대학에 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구성원 간담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한 관리 권한이 총추위에 있음을 고려해 구성원 단체 대표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오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10월 30일 구성원 대표자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구성원 단체 대표들은 투표 방식과 직원·학생 투표반영 비율, 시행세칙 준수 등에 합의했다. 문제가 되던 시행세칙이 마련되면서 줄곧 불안했던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었다.

이날 채택한 합의문은 교수·직원·학생을 포함하는 전 구성원의 직선제를 전제한다. 또 2안 의결로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 직원·학생 간 투표반영 비율은 50:50로, 직원 내부 투표반영률은 제1노조가 60%, 제2노조와 의료원 노조가 각각 20%씩을 갖기로 합의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 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최종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교수 측과 직원·학생 측이 추천하는 후보자가 같은 경우를 대비해 추천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3면으로 이어짐



동문 속한 유명밴드 잔나비, 발전기금 쾌척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락이 왔다”며 “이에 학교 측과 협의했고 대외협력처를 통해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우리학교 동문 최정훈(경영학 2011, 사진 좌측에서 3번째) 씨가 속해 있는 유명 밴드 잔나비가 발전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학교를 다시 찾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 잔나비 최정훈, 김도형, 장경준 씨가 참석했다. 잔나비의 우리학교 방문은 올해 봄 대동제, 가을 대동제에 이어 세 번째다.

잔나비는 축제 당시 받았던 열띤 환영에 감사의 의미로 출연료 중 8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손현상 대외협력부 총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용도로 쓰일 것”이라며 “학생이 준 기금이 학생을 위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울캠 종학생회(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축제를 마무리하고 폐포니 뮤직 최정준 실장님에게 출연료 중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는 연

락분이었다. 최정훈 씨는 지난 2011년 우리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동문이다. 총학 김 회장은 “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 축제에서 최정훈 씨가 본인은 옆 학교를 나왔는데 축제에 불러주지 않았다는 농담을 던졌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축제에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모교라서 그런지 경희대는 항상 반갑다”며 “타 대학 축제랑은 사뭇 다르게 친근감도 있고 흥그라운드에서 공연하는 기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더해 최 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힘들 때 불러주셔서 오히려 힘을 받아갔다”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일단 공연을 잘하기로 했고, 공연을 하고나서도 아쉬움이 풀리지 않아 수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감을 밝혔다.